

◆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1. 출품자격

- 1) 출품자 자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이며, 한우협회 회원(정회원 중 회비미납자는 출품 제한)
- 2) 출품우 자격
 - 가. 개체식별이 확실한 소 : 바코드 이표가 장착되어 있는 혈통등록우
 - 나. 품 종 : 거세우
 - 다. 생년월일 : 2006년 4월 1일~5월 31일생
 - 라. 생 산 지 : 출품농가 시, 군에서 생산된 등록우로 한정(12회 대회부터 적용)

2. 농가당 입식두수 및 출품두수

- 1) 입식 및 출품두수 : 3두 입식후 최종 2두만 출품(12회 대회 5두 입식, 2두 출품)
- 2) 입식 조사시 개체별 사진촬영 및 대회 출품귀표 장착, 모근 채취

3. 참가신청

- 1) 출품신청 : 2007년1월1일~3월10일한(우편송부시 3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본회 홈페이지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 출품회비 : 60만원
- 3) 회비납부기한 : 2007년 3월 10일(기한내 미 입금시 자동 출품취소)
- 4) 회비납부 계좌번호 : 237020-56-074625(농협) 예금주 : 우영목(입금시 반드시 참가신청자명으로 입금 요망)

4. 평가기준

- 1) 제10회 대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도체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기준 작성
- 2) 출하체중 : 공판장 도착체중이 600kg 이상(미달시 평가는 하되 시상에서 제외)

5. 출품우 입식조사 및 참여농가수

- 1) 입식조사 : 2007년 5월까지 완료
- 2) 참여농가수 확정(참가신청농가 중 회비미납농가는 자동 제외)
 - 가. 12회 대회부터는 참여농가수를 100개조로 제한하여 접수
 - 나. 대회 출품 신청후 출하포기시 1회(차기대회)에 한하여 출품 제한
- 3) 출품우 조사
 - 가. 발육조사 : 2008년 4월~5월(제11회 대회 입식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문의 : ☎ 02) 588-9301~5 (사)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신청서

출품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소속 브랜드명		
농장명 (반드시 기재)				
자택주소				
농장주소				
연락처	집		핸드폰 (담당자명)	
	농장 (사무실)		팩스	

사육현황

총 사육두수				밀소 구입 방법				
거세	수	암	계	자가 생산	우시장 구입	축협 알선	경매 구입	기타

보내실 곳

- 우편이용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우:137-871)
- 팩스이용 : 02-522-0171(팩스 송부 후 02-588-9301~5 접수 확인 요망)
- 홈페이지 :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 신청마감 : 2007년 3월 10일까지 본회 도착분에 한함

협회장동정



- ▶2007.02.08 :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사회 참석
- ▶2007.02.1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시
- ▶2007.02.2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사회 참석

▶2007.02.23 : '07년 우수축산물브랜드 1차 인증위원회 참석(소비자시민모임)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2월2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 앞서 가축개량사업에 공이 있는 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개량대상(표창장·금메달) 시상 및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가축개량대상은 전년도에 이어 2회째 실시되는 것으로 개량사업 참여도, 가축의 개량정도 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우, 젖소, 종돈농가 각1인 총3인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

였으며 가축개량대상 수상자로는 한우부문에 장성운씨(감곡농장:전북 정읍시 감곡면), 젖소부문에 김상호씨(송리목장:경기 양주시 은현면), 종돈부문에 (주)선진한마을단양GGP(충북 단양군 어상천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질병피해 및 FTA 협상 등으로 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종축개량사업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임·대의원 및 회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2007년은 전년도에 비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며 협회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혈통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 우량 종축을 선발하는데 기초자료 확립에 더욱 노력해 양축농가에 대한 피드백(feed back) 서비스를 통해 우수 종축생산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협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우수 종축생산 안내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개량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와 감사보고 및 2006년도 사업보고가 있는 후 부의안건으로 의사록 서명날인 대의원 전형,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승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회원 제명(자격변경), 회원 및 회비징수 규정 개정, 감사선임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특히 이날 부의안건 중 “회원 및 회비 징수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현행 한우 종모우·

종빈우 심사부분의 연간 심사두수가 적어서 현 심사회비 체계상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한우의 심사회비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2008년 1월부터 상향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회원자격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회원 및 회비징수규정 제9조에 따라 최근 3년이상('03-'06) 회비미납회원(제명대상자) 514인(한우 363인, 유우 152인)에 대한 관련조사 실시 후 오는 6월30일자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제18대 감사임기가 2월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9대 감사에 입후보한 2명의 후보<곽한무(유우회원 : 충북 청원), 박승술(한우회원 : 전북 정읍)>를 신입감사로 추대하였다.

2007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2월14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1회 이사회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접수 및 감사보고와 회원가입 현황보고가 있는 뒤 부의안건으로 회원자격 변경,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승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회원 및 회비징수 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7년도 정기감사 실시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2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중축개량회계 및 회관관리 특별회계, 예산집행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정기감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회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관개정을 포함한 회원관리 체계에 대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지부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회관운영 수지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밝혔다.

인사발령

본 협회의 직원 인사발령이 2007년 3월 2일부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직원명	직급	현 부서 및 팀명(직책)	발령내역
김병숙	3급	유우개량부 감정팀(팀장)	유우개량부 심사팀장(3급)에 보함.
양신철	4급	" 심사팀(팀장)	경북지부 근무를 명함. 경북지부장 직무대리(4급)에 보함.
임요순	4급	" 감정팀(팀원)	중앙유성분분석소 근무를 명함. 중앙유성분분석소 소장 직무대리(4급)에 보함.
김진형	5급	" 감정팀(팀원)	중앙유성분분석소 근무를 명함.
최명현	6급	" " (")	유우개량부 심사팀 근무를 명함.
박귀룡	"	" " (")	유우개량부 등록팀 근무를 명함.
조현정	"	" " (")	중앙유성분분석소 근무를 명함.
최경미	"	" " (")	중앙유성분분석소 근무를 명함.
이명화	"	" 심사팀(")	유우개량부 등록팀 근무를 명함.
조명문	"	" 등록팀(")	유우개량부 심사팀 근무를 명함.
장윤정	계약직	" 등록팀(")	중앙유성분분석소 근무를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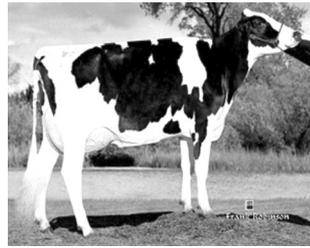
(주)중앙진테크

(주) 중앙진테크는 2007년 4월 서울우유 경진 대회를 대비하여 당사 우수 젖소정액 공급업체 인 미국 ABS GLOBAL, Inc 사의 Steven Pavelski 와 Amy Knuth가 3월 중 한국을 방문, 국내 우수 목장주들을 초청하여, 품평회 준비 및 지난 11 월 새로 도입된 GMS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가 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3월말 예정으로 있는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강사인 Mr. Steven Pavelski는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낙농 및 동물과학을 전공하였으며, Steven의 가족 농장인 Josan Farm에서 기르는 종 모우가 has a BAA of 110.6 which is 68th in the nation. 이런 배경으로 Steven은 세계 여러 주요 품평회에 참여한 오랜 실제 경험으로, 출중한 실 렷을 가진 ABS사의 재원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 해서 Steven과 함께 기본적인 품평회 준비와 함 께 그가 가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강사인 ABS GLOBAL의 GMS(Genetic Management System)(유전관리시스템) manager 인 Amy Knuth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를 졸업 했으며, 품평회 심사 및 수태을 관리자로 근무 했 었고, 현재는 ABS Global사에 GMS(Genetic Management System) (유전관리시스템) 팀 관 리자로서, 세계적 추세인 유전전달 프로그램 발 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2월 SIRE SUMMARY ABS GLOBAL, Inc 29HO111111 볼튼 세계 1등



지난해 8월 세 계 1등자리를 거 머쥐었던 29HO11111 불튼 이 다시한번 정상 의 자리에 올라섰

다고 전하며 자세한 정액 상담과 구입은 각 지 역 담당자에게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 본사 조환선 011-9036-3130
- 한수이남, 충청도 박영철 011-397-2433
- 한수이북, 강원도 박영갑 011-414-2834
- 경상도 한성환 010-2701-2667

(주)SnS사료



(주)에스엔에 스사료는 2월10 일~2월15일 이 스라엘을 모델 로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TMR

공동배합소 시스템을 모색하고자 유재복 대표 이사를 포함한 흥천목장 안래억 대표, 서인준 박 사, 이도형 박사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이스 라엘 시장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10만두 미만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작은 나라지만 검정성적은 두당 연간 12,000Kg이상으로 세계1위를 기록하는 낙농선 진국으로 특히 키브츠와 모샤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운영체제에 기초한 공동배합소(Feed

Center) 운영으로 40℃가깝게 오르는 여름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TMR을 생산할 수 있게 된 나라이다.

유재복 대표는 이번 출장에서 세밀한 사전 조사에 의한 출장 스케줄을 짚기 때문에 바쁘긴 했어도 버릴 것이 없는 일정이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주로 보고자 한 것이 공동배합소였기 때문에 큰 규모, 중간 규모, 작은 규모, 또 사료회사가 운영하는 곳, 키브츠 형태로 운영되는 곳, 모샤브 형태로 운영되는 곳, 550두 규모의 목장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배합소 6곳을 방문하여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에 연결된 목장들의 구체적 실태와 역할구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Ambar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료공장과 수정센타, 믹서제조 공장, 소프트 운영업체 등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으로 얻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재복 대표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환경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것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서 실행해보고자 했던 것이 그 동안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며 이번 출장결과가 멋진 한국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출장결과는 35개 목장이 주주로 참석하는 3월15일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조물산,

2007년 2월 3일~11일 웰거 서비스 미팅



동조물산은 2007년 2월 3일 ~11일까지 웰거사에서 (독일 본사) 매년 개최하는 웰거 서비스

미팅에 참석 했다고 전했다.

웰거사의 기계 트레이닝을 매년 받고 있는 동조물산직원은 이 미팅으로 인해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장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트레이닝에서 세계 각 나라의 웰거사 직원들과 함께 웰거 베일러와 랩퍼 교육을 이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트레이닝을 받고 온 직후 본사에서는 트레이닝 받은 내용들을 동조물산(주)의 전국 영업소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2월 20일 부터는 순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동조물산(주)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신뢰로써 보답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우유 작년 사업규모 1조7백72억

전년대비 3.8% 증가...당기순익 29억4천만원
21일 총회 개최...강의웅·송용헌 감사 선출도

서울우유 지난해 사업규모는 1조7백72억4천4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억4천2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김재술)은 지난 21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등 관련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한 사업실적과 수입지출결산안을 중점 심의, 의결했다. 특히 서울우유는 지난해 하루 평균 8백11만2천개의 우유를 판매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조직원이 단결하여 전년대비 3.8% 증가한 1조7백72억4천4백만원의 총사업규모를 기록하고, 당기 순이익은 29억4천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흑자를 실현한데 대해 서울우유는 지난해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와 요구르트를 비롯 '집중력을 생각한 우유' 스위트멜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월드컵 축구스타 이영표선수와 한류스타 보아 등을 모델로 하여 '1급A우유' 홍보를 통한 판매확대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21대 감사선거를 실시하여 강의웅대표(67세·물피목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와 송용현대표(63세·화랑목장·충남대 축산학과 졸업)를 선출했다. 강의웅감사는 서울우유의 지난 7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3대(19~21대)에 걸쳐 감사를 맡는 기록을 세웠다

조사료, 올초 '공급난' 에 또 올상

지난해 '쿼터난' 에 고전하던 조사료업계 농림부, 상반기 쿼터 15만 확대 배정 불구 美·호주 등 조사료 생산량 크게줄어 난항지나해 쿼터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조사료업계가 올 상반기 쿼터 배정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상의 문제로 또 다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조사료 배정 쿼터는 44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29만여 톤에 비해 크게 증

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조사료의 쿼터 부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농림부가 올해 쿼터를 크게 늘려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쿼터가 늘어났음에도 국내 조사료 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국내 조사료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주와 미국의 조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정진국 사무국장은 "지난해 조사료 쿼터를 배정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배정하는 협회의 입장도 난처했다" 며 "농림부가 올초 배정 쿼터를 크게 늘렸지만 호주의 가뭄과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 열풍으로 이들 국가의 조사료 생산이 크게 줄어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 밝혔다. 조사료 업계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바이어드의 김태환 차장은 "호주의 경우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건초 생산량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열풍과 일본 바이어들이 대거 미국의 저가사료에 까지 손을 뻗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저가 조사료에 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위주 생산으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한우농가들의 수입조사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차장은 "미국과 호주에 한정된 조사료 수입루트가 운임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다양화하긴 어렵기 때문에 알팔파 신곡이 생산되는 5월까지의 조사료 업계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조사료 가격과

동이 현실화되면 반추동물 사육농가들은 배합 사료와 함께 조사료 가격도 함께 올라 올해 이 중고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입 루트를 다양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조속한 확대가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축등록 검정기관 기준 마련

육종전문가 등 인력 확보해야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축개량기관인 등록·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농림부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해 고시했다. 농림부는 가축 등록·검정기관 지정 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재량행위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육종·유전능력을 분석·관리할 수 있는 가축육종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자격 이상 소지자 또는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가축의 경제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가축 등록에 필요한 측정기구와 등록기록·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자와 동 시험 응시자 및 정액처리업등록 신청자의 수수료를 각 2천원씩 오른 6천원과 8천원으로 조정했다.

낙농육우협회장에 이승호 회장 재선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낙농육우협회장에 현 이승호 회장이 재선됐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열린 낙농육우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승호 씨는 142명의 대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92표를 획득, 50표를 얻은 박응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중축개량산유검정중앙회



지난 6일 한국중축개량협회 검정농가 회원으로 구성된 중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

회는 대의원과 회장단 및 각도 이사 등 관련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회장에 김희동씨(정동목장 경기포천)를, 부회장에 박성수씨(호수목장 경북영주)와 류수일씨(원영목장 충남아산)를, 감사에 최준호씨(단성목장 충남서산)와 최행일씨(늘샘목장 경기오산)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날 4대 회장으로 추대된 신임 김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임기동안 과거 집행부 임원진들과 함께 중앙회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특히, 조사료 쿼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혈통등록률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일 등이 우수개량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낙농가의 실천의지 만큼이나 검정원의 역량도 배

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원의 역량을 확대하고 단순 샘플채취 업무 외에 등록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_공직기강 확립 결의대회 개최 “농촌진흥청 간부 혁신연찬회에서 다짐”



농촌진흥청 간부 36명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혁신연찬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농촌진흥청 간부들은 농촌진흥기관에 걸맞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서 스스로의 기강확립과 자정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임을 자각하고, 그 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보 유출·줄서기·이권개입 등 일탈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직 전체가 이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무사안일·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공직 문화 정착에 힘쓰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격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결의대회가 고위직의 솔선

수범으로 하위직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월~4월중에 소속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촌개발연수관에서 본청 국장급, 소속연구기관장, 도농업기술원장 등 간부 36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천한우회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이천한우회는 2월 9일 설봉호텔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행사는 2006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와 2007년도 사업계획을 토의했으며 새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에는 임관빈 회장이 유임되었다. 제2부 행사는 조병길 이천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및 한우회 직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도 한우개량사업에 적극 참여한 이천한우회 김성진 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국초지학회 “학술 심포지움”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유기축산과 국내 자급사료 생산 이용”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움을 한국초지학회·유기축산연구회 공동으로 2월 23일(금) 축산연구소(수원)에



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에서는 권두중연구관(축산연구소 축

산환경과)이 '유기축산의 현황과 전망' 을, 조의환교수(대구대학교)가 '순환농업을 통한 조사료 생산' 을, 윤세형박사(축산연구소 조사료지원과)가 '유기조사료 생산 이용의 문제점과 대책' 을, 김종덕교수(천안연암대학)가 '유기조사료의 경제성 평가와 가축생산이용' 을, 박행규사장(충북보은 청우목장)과 고민수사장(강원 횡성 범산목장)이 각각 '농가사례' 를 발표하였다.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제2회 자연순환농업 포럼”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자연순환농업” 을 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와 공동으로 2월 23일(금)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6)과 해양오염방지법 강화 등 축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학술대회였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가축분뇨의 농경지 이용을 확대하고자 2006년부터 자연순환농업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지원 강화방안과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등을 수립하고 자연순환농업연구 사업단장으로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을 임명한 바 있다. 따라서 축산을 둘러싼 환경관련법의 강화에 따른 가축분뇨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한 이번 학술대회는 축산시설·환경과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하여 대학과 연구소의 많은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자연순환농업 포럼에서는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한 작물의 재배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호남농업연구소 이상복 박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도작 경진대회”를 주제로 양돈협회 이천지부의 정종극 지부장이 발표하였다.

「함께하는 농업기술박람회」 참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2007년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함께하는 농업기술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박람회는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일련의 기술에 대하여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애로기술 해결방안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소개 등 관련 농업기술 상담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개최 되었다.

축산연구소에서는 특별 상담관을 파견하여 한우와 양돈분야에 대한 특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부스에서는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치즈, 햄 등을 전시하고, 이들 제품들을 소비자가 직접 시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우분야의 특별상담 내용은 한우개체관리 시스템, 한우생산이력제 시스템, 한우개체 관리 시스템 등이었고, 양돈분야는 양돈 경영자의 생산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방안,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공 기술, 돈육 브랜드화 및 시장대응방안 등이었다.

축산연구소 혁신 T/F팀 활동보고회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에서는 「축산연구소 혁신과제」의 단

계적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5일 수원 본관 3층 대강당에서 혁신 T/F팀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장 등 주요 간부진 및 직급별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벌여 업무혁신 이행(안)을 작성 하였으며, 업무혁신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였고, 8가지에 이르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전략 목표에 따른 실천적 이행과제를 작성함으로써 혁신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8가지의 전략목표의 세부내용은 조직관리체계 개선, 효율적인 예산관리, 연구관리방법 혁신, 객관적인 성과관리, 연구행정 지원 강화, 고객 감동 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정책연구소 위상 강화이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시험농장 “가축방역 우수농장”으로 선정



안성시가 농림부 선정 가축방역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안성시의 대

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시험농장이 가축방역 우수농장으로 선정되어 2007년 2월 6일에 시상된 가축전염병 관리 우수농장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2006년 전국 가축방역 최우수지역으로 안성시가 선정이 되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4년 연속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의 발생이 없었고, 28개소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가축 일제소독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소부루셀라병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현격히 발생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에 안성시의 축종별로 10농가씩 우수전염병 관리농장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시험농장에는 우수농장 상패와 꽃말을 주어 주위농가의 모범이 되게 하였다.

이날 시상은 대표로 양돈협회 안성지부장이 대표로 시상을 하였고,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안성시장(이동희)께서는 “선진축산의 고장인 안성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축산의 지도자들과 같이 도농복합도시를 이루며 자랑스러운 축산농가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한 무지개사료 유정선농장장과 축산과장 및 면 축산계장들과 같이 오찬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의 축산의 나아갈 길과 애로점을 들으며 고민을 같이 나누었다. 또한 전적으로 안성시의 축산농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안성시험농장은 매일 양돈장 소독 및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주중 1회는 농장전체의 소독 및 주변 도로까지 소독을 하였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축산의 기본이 되는 방역활동에 전직원이 함께했다.

우성사료_경주검정회 낙농대학 입학식 실시 “낙농산업의 블루오션을 찾자”



경주검정회 소속 60명이 낙농대학을 통해 낙농산업의 블루오션을 찾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 줄 것을 결의했다.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경주검정회 낙농대학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3일 제2사업본부(표광수 본부장/경산공장)주관으로 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 황규원 학생대표(경주검정회 회장)를 포함한 경주검정회 회원60명의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이상락 경주낙농협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낙농과 축산업이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지만 결국은 낙농인 스스로가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며 이번 낙농대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초청강사로 첫 강의를 맡은 조옥향(은하목장

대표)씨는 “한국 검정회가 나아갈 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83년 귀농과 함께 처음 시작한 낙농업을 통해 배운 자신의 경험과 여주 검정회를 조직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토대로 생동감 있는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제는 2세대 경영에까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언급하며 “낙농업의 블루오션을 찾아 후대에 물려주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낙농대학을 이끌 김건영 씨(우성사료 지역과장)는 2년간 진행할 교과목을 소개하는 가운데 10년 후의 낙농산업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소수정예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환경에서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을 모두가 함께 다짐했다.

우성사료는 2002년 제1기 보령여성낙농대학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제13기 고창여성낙농대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6년여의 여성낙농인 교육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낙농인들의 열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급과정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농림부, 상반기 쿼터 15만t 확대 배정불구, 美·호주 등 조사료 생산량 크게 줄어 난항

지난해 쿼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조사료업체가 올 상반기 쿼터 배정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상의 문제로 또 다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조사료 배정 쿼터는 44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29만여 톤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는 지난해 말 조사료의 쿼터 부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농림부가 올해 쿼터를 크게 늘려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쿼터가 늘어났음에도 국내 조사료 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국내 조사료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주와 미국의 조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이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정진국 사무국장은 “지난해 조사료 쿼터를 배정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배정하는 협회의 입장도 난처했다” 며 “농림부가 올 초 배정 쿼터를 크게 늘렸지만 호주의 가뭄과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 열풍으로 이들 국가의 조사료 생산이 크게 줄어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 밝혔다.

조사료 업계는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바이어드의 김태환 차장은 “호주의 경우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건초 생산량이 1/3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열풍과 일본 바이어들이 대거 미국의 저가사료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저가 조사료에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위주 생산으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한우농가들의 수입조사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차장은 “미국과 호주에 한정된 조사료 수입 경로가 운임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다양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팔과 신곡이 생산되는 5월까지의 조사료 업계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조사료 가격파동이 현실화되면 반추동물 사육 농가들은 배합사료와 함께 조사료 가격도 함께 올라 올해 이종고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입경로를 다양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조속한 확대가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_ 이사회 개최

“‘07년 사업 회원확대와 정예화에 초점”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21일 제2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사업예산안 및 결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2007년 사업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협회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의 회원농가들을 배가하고, 미진한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회 및 지부의 회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별 배정인원을 설정해 이를 달성한 지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납부한 회비를 일정부분 지회 지부운영비로 환원키로 했다.

아울러 배정인원을 초과 달성한 지부에 대해서는 추가인원 회비의 50%를 지회·지부운영기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회비 환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지회 및 시군지부의 역할을 강화해 한우협회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된 브루셀라 방역 우수지부 선정 건에 있어서도 브루셀라 방역활동에 추가해 협회 기여도가 큰 지부를 우수지부로 선정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브루셀라 방역지부로 선정되면 최우수지부의 경우 1천만원, 우수지부 8백만원, 장려 6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부 운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호경 회장은 “한우협회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시군지부의 끈끈한 결집력이 그 원동력이 됐다” 며 “협회의 힘은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각 시군지부에서는 결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판매점 인증신청 26개업소 현장심사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2007년 1차 한우판매점인증제 후보 26개 업소에 대한 현장 심사에 들어갔다.

총 36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결과 10개 업소가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식육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가 미비해 탈락했으며 이를 통과한 26개 업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3월14일까지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현장심사를 받게 되는 업소는 서울경기 8개, 충북 1개, 충남 3개, 전남 2개, 경북 4개, 경남 7개이다.

전국한우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2월28일 오후 1시 안성농협연수원에서

200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우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한우산업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 이라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검역원 앞에서의 한미 쇠고기 협상 저지 등 한우산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성의 표시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의록과 보고사항 의결 및 감사보고에 이은 2006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이 있었으며, 2007년도 사업목표를 한우산업의 안정화에 두고 회원확대 및 정예화, 유통투명화감시단활동 효율화, 판매점인증사업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한우가격 안정화 활동 강화, 한우교육의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 임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변경기로 하였으며 대의원 구성에 있어 회원의 자격은 대의원 선출이 이뤄지는 해 이전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회원 50명 미만 지부는 대의원을 둘 수 없도록 하였다. 단, 특정지역은 2008년까지 회원 3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찍 찾아온 황사 ‘요주의’

축사 창·출입문 닫고 건조·벗짚 등 덮어줘야

▶농림부, 농가 관리수칙 발표

봄철 골칫거리인 황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기상청의 황사 발생 예보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황사 발생 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 기상정보에 의하면 올해 황사 발생이 지난 1월 2일 처음 발생, 예년과 달리 일찍 나타나고 있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돼 사양관리 수칙을 참고해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산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노지에 쌓아둔 건조·벗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황사가 끝나면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자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유지방 위주 유대산정체계가 ‘손질’

유지방 위주의 유대산정체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춰 개선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에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지방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함은 물론 고지방 원유생산치중에 따른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기본가격과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균수와 체세포수의 상위등급 인센티브 추가 및 하위등급의 패널티를 강화해 농가들의 수취유대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지방은 등급구간 및 등차가격을 축소하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사회 심의 의결과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개량총괄기관인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개량목표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현재의 유성분별 유대체계는 유지율을 증가시키고 단백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웰빙우유와 상반된 우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대가격체계를 유지방, 체세포수에서 유지방, 단백질 및 무지고형분으로 단계적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종축개량협회의 한 관계자는 “낙농업계에서도 유대가격산정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그동안 품평회에서도 육성우 경매행사를 통해 이미 단백질 비중을 감안했다. 그러나 개량이 단시일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3~4년전부터 진행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농육우협회의 이해영 과장은 “유성분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변화에 따라 농가사양관리방법이 바뀌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낙농가들이 단백질 위주든 어떤 부분이 됐든 새로운 산정체계가 시행

되면 원유가의 변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육우 사육마리수 증가 우려수준...

농경연 축산관측

최근 한육우 사육마리수 증가추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육마리수 증가추이는 젖소를 제외한 전 축종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 상반기 이들 축종의 가격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축산관측을 통해 이같이 예측하고 과열입식을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전년동기예 비해 11.1% 늘어난 202만 마리로 집계됐다.

최고기 공급량 증가로 3~5월 한우 산지가격은 암소 500~510만원, 수소 430~440만원, 수송아지 215~225만원대로 각각 전기대비 4.7%, 4.4%, 4.3%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추이는 돼지와 산란계 및 육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3월과 6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각각 전년동기보다 3.5% 증가한 932만8000마리와 4.0% 증가한 939만5000마리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3~5월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4.9% 하락한 24~25만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육계가격은 지난해 kg당 1580원 시세보다 크게 하락한 1000~1200원, 3~5월 계란가격 역시 평년 792원에 못미치는 700~75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점쳐졌다.

aiak News NEWS 해외소식

미국 홀스타인 협회가 2월 발표한 체형생산 지수(TPI) 기준 미국내 최고 젖소 종모우 10위 명단

1. 볼튼 (Sandy-Valley Bolton-ET, TPI+2042),
2. 저스투스 (O-Bee Manfred Justice-ET, TPI+1982M),
3. 버크아이(R-E-W Buckeye-ET, TPI+1933)
4. 리더(Muranda BWM Leader-ET, TPI+1921),
5. 스트림(Applouis Jet Stream-ET, TPI+1916),
6. 토이스토리 (Jenny-Lou Mrshl Toystory-ET, TPI+1895),
7. 빌리온(J-K-R BW-Marshll Billion-ET, TPI+1890),
8. 에어레이드(Sildahl Airraid, TPI+1888),
9. 벙키(Jafral Marsh Binky-ET, TPI+1854),
10. 스파타(Paradise-DND Sparta-ET, TPI+1848)

미국, 복제 젖소의 우유 소비자들 거부감

미국내 최대 우유회사가 복제소의 우유는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복제소의 우유와 고기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스에 위치한 던 푸드사는 “고객은 복제 동물에서 나온 우유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랜드 오레이크스와 호라이즌 오르케너, 메도우 골드 테일러 하와이를 포함 1,000억 달러의 여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던 푸드사는 “많은 설문지가 보여주듯 미국사람은 복

제 동물에서 생산된 우유를 원치 않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 과학자는 “전통적인 소, 돼지, 염소와 복제동물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따라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12월에 복제동물의 우유와 고기에 대해 예비 승인을 하였고 연말에 완전히 승인하였다. 소규모 업체인 벤&제리 아이스크림사와 오르게닉 벨리사도 전에 “복제 동물에서 나온 우유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유 회사는 “현재까지 대중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복제품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유제품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거릿 코웰 딘 푸드사 대변인은 “FDA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중시하며 고객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4차 낙농목장 폐업 프로그램 착수

미국 낙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낙농목장 폐업 프로그램이 지난 2월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오는 3월 3일 마감된다고 발표되었다. 미국 전국 낙농가 연맹(NMPF)이 주관하는 ‘함께 협동하기(CWT)’라는 이 낙농가 폐업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생산농가의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지난 '03년 착수되었으며 현재 미국내 전체 우유생산량의 7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신청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조금 거출에 참여한 농가로 폐업시 희망보상금액을 제출하면 회계감사를 거쳐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일정농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폐업 프로그램에 의해 총 33억파운드의 원유생

산량을 감축해 미국 낙농기들은 원유 1백파운드 당 40센트를 추가 지불받아 총 20억달러의 수입 증대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젓소 활용 이동 우유교실 인기

미국 조지아주가 여성낙농인과 주립대학을 연계하여 실시중인 젓소를 활용한 초등학교 이동 우유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4년전부터 실시중인 이 프로그램은 주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젓소를 임대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낙농인이 착유하는 법부터 착유후 위생적인 젓소관리, 유제품의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지아주내 각 지역별로 약 20여두의 대학이 소유한 젓소를 활용하고 있는 이 교육은 가까운 지역의 젓소를 직접 초등학교까지 이동시켜 현장 교육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국 낙농지도자 대회 4월 개최

미국 낙농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07년 미국 전국 낙농지도자 대회가 오는 4월15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주 스티븐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다. 미국내 주요 낙농가들은 물론 협동조합 관계자, 대학교수, 지방 및 연방정부, 유업체 관계자들이 망라되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낙농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예정인데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고부가가치 유제품 개발을 통한 우유소비촉

진, ② 07년 미국 농업법 개정과 낙농업 정책 변화, ③ 잉여 유제품 처분에서 탈피한 미국산 유제품 수출 증진대책, ④ 유기농 유제품 시장의 성장과 전망, ⑤ 북미 지역의 자발적인 가축 식별 체계 도입 확산 등이다. 이밖에도 목장에서 재활용 에너지 사용, 경제적인 치즈 공장 운영, 낙농분야 생명공학 기술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농축 유단백제품 과다 수입규제 검토

캐나다 농무성이 자국 내 과다하게 수입되는 농축 유단백제품의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치즈나 다른 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농축 유단백의 수입량은 지난해 82%가 늘어난 4천5백만달리로 캐나다 낙농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 유럽 연합, 미국 등이다. 캐나다 농무성은 이들 유제품이 수출 보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는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수입제한에 제약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 농무성은 이들 유제품 수입 증가가 우유생산 쿼터관리체계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몬산토사, 성 분리 젖소정액사업 중단

세계 최대 종자 및 생명공학기업인 미국 몬산토사가 정자 분리를 통한 젖소송아지 성 분리 정액생산사업을 중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성 분리 정액 시험제품에 대한 대규모 임

상실험에서 목표로 했던 85%의 암송아지 출산과 번식성적이 기존의 인공수정과 같아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된 결과가 나온 직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몬산토사는 지난 '05년 미국 내 최대 소 정액생산기관중 하나인 씨알아이(CRI)사와 함께 성 조절 정액 생산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현장실험을 실시해 왔다.

러시아, 쇠고기관세 인하

러시아 의회가 쿼터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절반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올해 쿼터량을 초과한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kg당 0.3유로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 30%로 책정된다. 반면 쿼터량을 초과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50%에서 60%까지 인상됐다.

일본, 06년 유량 2만 kg이상 생산우 17두

06년 12월말 일본내 북해도를 제외한 본토내 유량 2만kg이상을 생산한 젖소는 모두 17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에 따르면 '06년 본토에서 산유능력검정에 참여한 젖소중 10개월 성적으로 2만kg이상을 생산한 젖소는 2두이며, 이중 최고기록우는 '미야자키' 현에 있는 '엘크'라는 4세1개월령 젖소로 3산차 유량이 2만949kg, 유지율 2.8%를 기록하였고 일본 4세형 최고 기

록을 수립하였으며, 12개월 성적으로 2만kg이상을 생산한 젖소는 15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지난해 9 - 12월중 일본 생애성적 최고우는 '사이타마' 현의 '스위트' 라는 젖소로 7산 검정 유량으로 유량 10만1천123kg, 유지율 3.9%를 달성한 소이며, 특히 이 소를 사육한 농가는 5마리가 10만kg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다농' 사 태국 유제품 시장 진출 확대

세계 최대 유업체중 하나인 프랑스 '다농' 사가 신선 유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는 태국에 현지 유업체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22억 유로의 유제품 판매액을 갖고 있는 '다농' 사는 최근 태국내 건강 지향 유제품 수요증대에 발 맞춰 기존 유업체인 '더치 밀' 사와 협력하여 즉석 요구르트나 칼슘 강화 우유를 본격 시판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내 신선유제품의 수요는 1인당 4kg 수준이나 향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요구르트 시장은 년 15 - 20%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내 자사 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농' 사는 이번 조치로 자사 기술력과 현지 마케팅 능력이 합쳐져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우유생산쿼타제 존폐논란 가열

유럽연합내 우유생산 쿼타제가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마리안 휘셔 보엘' 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 낙농협회 모임에서 업계 지도자들에게 현행 쿼타제는 낙농가들의 손은 풀어놓고 받은 묶는 것과 같은 모순된 제도라며 내년 주요 의제로 쿼타제 철폐를 제안 할 것임을 강력시사하였다. 올해로 25년차인 유럽연합 우유생산 쿼타제는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06년에만 9개국 이 쿼타량 초과우유를 생산하여 3억7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하여 업계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전문가들은 쿼타제 철폐시 대규모 농가나 유업체에 유리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대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젖소 교잡우 송아지 육성률 증대

젖소 교잡우를 생산하면 송아지 육성을 증대에 효과적일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위스콘신주립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이들 연구진은 홀스타인종 어미소에 홀스타인 수소를 교배한 송아지와 홀스타인과 저지종 교잡우 수소를 교배해 태어난 송아지들에 대해 생시체중, 분만난이도, 송아지 폐사율, 분뇨 정상여부 등을 조사 비교했다.

연구결과 홀스타인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들이 생시체중이 1.8Kg정도 커서 난산의 우려가 컸으며, 교잡종 송아지들이 폐사율이 적고 설사를 하는 일수도 적은 것으로 발표됐다.

미국, 최대 곡물사 '카길' 옥수수 연료공장 건립

세계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 사가 옥수수를

활용한 에너지원인 '에탄올'을 본격 생산하는 공장 4개소를 미국 중서부에 건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연간 1억갤론의 에탄올을 생산할 이들 공장들은 미국내 옥수수 주산지에 설립될 예정인데, 각 공장들은 연간 4천만 부셀의 옥수수를 사용하고 30만톤의 주정박을 생산하여 사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23일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은 에너지원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풍력발전, 목재칩이용, 에탄올 생산등 대체 에너지 사용량을 2017년 까지 현재보다 5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어 향후 세계 옥수수 수급은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06년 유량 2만 kg이상 생산우 17두

'06년 12월말 일본내 북해도를 제외한 본토내 유량 2만kg이상을 생산한 젓소는 모두 17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에 따르면 '06년 본토에서 산유능력검정에 참여한 젓소중 10개월 성적으로 2만kg이상을 생산한 젓소는 2두이며, 이중 최고기록우는 '미야자키' 현에 있는 '엘크'라는 4세1개월령 젓소로 3산차 유량이 2만949kg, 유지율 2.8%를 기록하였고 일본 4세형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12개월 성적으로 2만kg이상을 생산한 젓소는 15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지난해 9 - 12월 중 일본 생애성적 최고우는 '사이타마' 현의 '스위트'라는 젓소로 7산 검정유량으로 유량 10만 1천123kg, 유지율 3.9%를 달성한 소이며, 특히 이 소를 사육한 농가는 5마리가 10만kg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작년 클린밀크 목장 12개소 인증

일본 니가타현 축산협회는 최근 축산물 안심 브랜드 인정위원회를 개최해 젓소목장 중 '06년도 클린밀크 생산농장 12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가축생산농장 전반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HACCP)의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해 인증하는 이 제도는 '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육우목장 25개소, 양돈장 71개소, 양계농장 19개소, 육용계농장 15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위원회에는 행정기관, 학계전문가,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농가는 매년 1회 가축보건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정농가는 인증결과를 활용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자체 생산 출하하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판매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쇠고기관세 인하

러시아 의회가 쿼터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절반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올해 쿼터량을 초과한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kg당 0.3유로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 30%로 책정된다. 반면 쿼터량을 초과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50%에서 60%까지 인상됐다.

〈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 해외정보 발취〉